

예고된 이색기록...바이든·트럼프 112년 만에 전현직 대결

68년만의 리턴매치...최고령 취임 이어 최고령 연임 대통령 132년 만에 '징검다리' 대통령...8개월간의 본선 선거운동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경선을 거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여러 가지 '이색 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대선은 1912년 이후 11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연속이 아닌 징검다리로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아울러 두 사람은 양당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정해져 장장 8개월간 본선 대결을 벌이게 된다.

또 이들 중 누가 당선되면 역대 최고령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쓰게 된다.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재대결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의 재선을 막기 위해 도전한 사례는 1912년 이후 112년 만이다.

20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공화당을 탈당해 대선에 다시 출마하면서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이자 현직(27대)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허워드 태프트와 경쟁을 벌였다. 결국 공화당 표가 분열되면서 민주당 후보였던 우드로 윌슨(38대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승리했다.

그 이전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대결은 1802년에 있었다. 당시 현직이었던 벤저민 해리슨(22대, 공화)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인 그로버 클리블랜드(22대, 민주당)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해리슨의 연임을 좌절시키고 대통령(24대)에 당선됐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되면 클리블랜드 전 대통령 이후 132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미국 내 각지에서 일제히 치러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사실상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두 전현직 대통령의 예견된 '리턴 매치'가 현실로 다가왔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의 나이는 70세였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1981년 첫 임기 개시 때 69세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1년 조사 때 역대 대통령의 취임시 당시 평균 연령은 55세였다.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양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는 11월5일 선거일까지 8개월 동안 본선 선거운동을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년 만에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미국은 4년 임기가 아닌 인물을 기준으로 몇 대(代) 대통령인지 순서를 부여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게 될 경우 46대 대통령으로 계속 남게 된다. 하지만 45대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새 임기가 시작돼 4

7대 대통령이 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은 미국 대선 역사상 두 번째로 동일한 후보가 다시 맞붙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전 사례는 1968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34대, 공화) 당시 대통령이 애들레이 스티븐슨 당시 민주당 후보와 두 번째로 대결한 것으로, 당시엔 아이젠하워 대

통령이 연거푸 승리를 거둔 바 있다.

◇78세나 82세나...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 나온다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는 두 후보의 나이가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82세에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그는 78세였던 202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 재

선에 성공하면 이 나이 기록을 스스로 경신하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당시와 마찬가지로 78세에 대통령직을 시작하게 된다. 다만 생일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11월20일생,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14일생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면 취임 시 나이가 약 5개월 더 많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의 나이는 70세였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으로, 1981년 첫 임기 개시 때 69세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전인 2011년 조사 때 역대 대통령의 취임시 당시 평균 연령은 55세였다.

이번 대선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양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오는 11월5일 선거일까지 8개월 동안 본선 선거운동을 벌이게 됐다. /연합뉴스



백기를 든 채 피신하는 팔레스타인 여성들.

“가자지구 밖으로 후송해야 할 환자 8천명”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이 격화하는 가자지구에서 다른 국가로 후송이 필요한 환자가 8천여명에 이른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WHO 팔레스타인 구호책임자인 리처드 피퍼콘은 이날 화상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가자지구 내 환자 8천여명을 다른 국가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는 가자지구에 있는 병원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퍼콘은 후송이 필요한 대상자 8천여명 가운데 6천여명이 무력 충돌 과정

에서 다발성 외상이나 화상 등을 입은 환자들이 나오며 이는 일반 질환자라고 설명했다.

피퍼콘은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7일 이전에는 가자지구에서 하루에 환자 50~100명이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으로 옮겨져 치료받을 수 있었지만, 교전이 시작된 이후로는 후송 환자 규모가 급감했다”고 부연했다.

피퍼콘은 “지난해 11월부터 환자 후송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정부 “징용해법이 한일관계 개선 기여”...후속조치는 언급 안해

“韓정부가 발표조치 따라 대응” 기존 입장 반복

일본 정부는 6일 한국 주도로 1년 전 발표된 일제 강제징용 해법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 기업의 참여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결책의 의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작년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에 관한 조치 실시와 함께 한일 대화와 협력은 침체기를 벗어 나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과 양 모두 힘차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어려운 전략환경 아래에서 한미일 간 협력도 중층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런 협력 확대는 한일 쌍방의 노력으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일본의 전략적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야시 장관은 “징용 해결책을 이행

하는데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의 자금 확보와 해결책을 거부하는 일부 원고에 대한 대응 등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지난해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에 따라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만 대답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과제에 대해 계속 한국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한일 관계의 개선을 양국 국민이 지속해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이후 일본의 강제징용 피고 기업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때

마다 유감을 표하며 항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위배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발표한 해결책에 따라 대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승소가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한다는 ‘제3차 변제’ 해법을 발표하고 이후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피고 기업은 모금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시진핑 “中, 전방위 개혁 심화 위한 주요조치 필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방위 개혁을 심화하기 위해 주요 조치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지난 5일 장쑤성 전국인민

대표대회(전인대)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관영중앙(CC)TV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데 강력한 동력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품질 발전은 혁신과 협조, 녹색, 개방, 공유 등 5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시진핑 시대 발전 전략으로 다소 모호하

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시 주석은 아울러 민간 경제와 기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도 역설하는 한편 현지 상황에 맞는 새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고탄성 초경량 카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